



# HERE & NOW

## 지금 & 여기에

### 조지아 성녀 니노(Nino, ნინო)

한국 개신교 선교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유명하다면, 조지아 정교회 선교의 역사적 인물은 니노와 그레고리(Gregory)입니다. 특히 성녀 니노는 조지아인들에게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조지아 여행 중에 꼭 방문하는 므츠헤타의 대성당, 즈바리 수도원 그리고 보드베 수도원에서 니노의 감동적인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녀 니노는 주후 296년 지금의 튀르키예 갑바도기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니노는 공주의 신분으로 기독교 가문에서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조지아에 포로 노예로 오게 되어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녀 니노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포도나무 가지 두 개를 묶어서 독특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니노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와 미리안 3세 왕도 니노에게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며 왕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성녀 니노와 사촌 그레고리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조지아는 4세기 초에 아르메니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니노의 무덤은 그녀가 340년경까지 수도자로 지낸 보드베 수도원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들

첫째, 8월 13-16일 사가레조 청소년 선교센터에서 처음으로 유소년 여름 캠프를 합니다. 예인교회 청년팀 8명이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참가자 모집, 안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진행, 캠프 후의 선교센터 운영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조지아 개신교회는 오순절과 침례 교단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저희 부부와 교제하는 침례교회의 메랍 목사님 가족과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남&이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언어 공부, 문화 적응, 말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두 아들 택원, 택수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며, 직장에서 말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